

내가 혼자 한게 없으니 내세울것도 없는것입니다

29면에서 계속

경(究竟)에 이르고 열반(涅槃)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다스리시라라고 믿고 질문 있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자(남):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양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행 중에 헛갈리는 것이 있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관(觀)의 정의를 안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주인공을 믿는 것이 아니고, 되고 안되고를 맡겨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뜻이 되고 산은 산같이 살라 하고 꽃은 꽃같이 살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뜻을 세간법으로 정치에 비유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의 뜻을 종합해서 민의에 따라 해야지 억지로 하면 언젠가는 불만이 터지게 되고 불만을 갖고 있는 민중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뜻을 읽는 것이 관이라고 하면 그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인연 따라 행하는 것이 무심(無心)으로 업사에 따르지 않는 좌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단이 생기는 것은 스님께서 안될 때는 '너는 할 수 있다.' 하고 마음을 내라고 하시고 간혹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내다 보면 무심관(無心觀)에서 일보 후퇴하는 일심관(一心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며 억지로 익힌 감각 저절로 익은 감각의 맛이 다르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스님: 여러분이 이렇게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는 내 마음을, 즉 말하자면 과거 부(父)와 현재 자(子)가 상봉을 해가지고 둘로 보지 않는 관찰을 하는 거 다르고, 지금 무지에서 관찰하는 게 다릅니다. 무지에서 관찰하는 것은 결면만 보고 나쁘다 좋다 하는 거고, 바로 상봉한 사람이 관찰하는 것은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안팎이 동시에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요약이 여러분의... 여러분은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둘 아닌 관찰이라면 자기가 봐서 둘 아닌 관찰이니까, 봐서 딱 한 생각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순간 바로 손 없는 손이 눈 없는 눈이, 귀 없는 귀가 바로 한 찰나에, 찰나에 왕림이 되니깐요.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행해진다. 그런 즉 말하자면 한 부처님의 마음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런 거죠.

질문자(남): 스님의 가르침대로 무심수행을 하노라면 권속이, 식구가 살림살이 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심을 했었나?' 하고 생각을 하면 번뇌가 찾아들어 무심을 흠어버립니다. 스님의 표현 방법을 빌리자면 무심은 눈을 뜨고 폭 쉬는 것이라면 방심은 눈을 감고 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 감고 쉬면 길잡이가

단을 듣고 눈 뜨고 쉬면 권속이 뻥히 쳐다보니 이렇게 딱 막힌 곳에 방귀싸 털 막이는 도리가 있는 것 같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스님: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다 놔야 됩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서 그대로 여유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한 푼이고 두 푼이고 열 푼이고 이거 저거 파지게 되면 아주 산란합니다. 더 갖고자 해서 산란하고 덜 가지면 못 가져서 산란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양면을 다 놓으십시오. 다 놓고...
왜 나라 이러느냐 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리고 고정점이 없이 공(空)해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건데, 자는 걸 버릴 수도 없고 깨는 걸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한꺼번에 그냥 다 놓고 '으응, 너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 하고 다 놓아버리세요. 그러자면 '너는 네가 다,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 같은데 표어가 다른 것은 시대나 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 점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 그 이름의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벗어나서 그대로 믿고 (정면을 찰라 보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이게 뭘?' 하는 건 수박을 놓고 '이게 뭘?' 하고 굴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건 '그대로 수박을 잘라서 먹어라.' 이겁니다. 그대로 수박을 잘라서 먹는다면 바로 영원히 먹일 씨도 나오고 또는 맛도 알고 그럴 테니까 '잘라서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 이름을 다, 그 많은 이름을, 그 많은 공안을 다 놓고, 그냥 못 믿지 말고 믿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깐 상대성도 생겼고 세상도 벌어졌고 부처가 있는 줄도 알았지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없는 거 아닙니까? 무효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를 무조건

질문자(남):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주 법회 때 스스로 마음으로 정한 보시금을 바쁜 곳에 대응해 쓰고 다음에 보시하겠다는 것은 즉, 돈에 돈 섞이기 급한 곳에 먼저 쓰고 형편 되면 다음에 보시하면 되지 하는 생각은, 물건값을 주고 그 돈을 다시 뺏어오는 경우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대령도 자기만 만든 법은 지켜야 되는 것과 같은 도로로 비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를 저질렀을 때 되돌려놓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스님: 물론 돈이 아닌 까닭을 알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무명에서 벗어나서 여유하게 다스리고 참, 구족(具足)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죠. 허나 지금 배우는 사람들에게서는 꼭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워도 우리가 이걸 참 감사하니까 시주를 해야겠다 이라고 때놓지 않습니까? 때 놓고 있다가 그 이튿날이고 언제고 이거 돈이

을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에 사는 사람인데 공업을 새로 시작을 한 사람인데 그저 요만한 하고받처럼 해놓고서 그거를 지금 사급세로 들어서 있으면서 먹고 살 양으로 뭐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야, 그 물건이 영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헤이, 그냥 시주를 부쳐남 앞에 해봐야겠다.' 그러면 시주를 그때에 오만 원인가? 있어버서 모르겠어요, 열만지. 그래서 시주를 하려고 그거를 이불 갈피 속에다 넣어놓고는 딱 나왔는데야, 그 물건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찢절매다가 그걸 도로 갖다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물건을 되찾아가더라는 얘기에요. 그 물건을 그냥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돈 낸 것 그냥 다 줘버리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얘깁니다.

그레가지곤 왜가지고는 울고불고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왜 시주는 했다 도로 빼앗아 갔어?' 하하하. 그랬더니 '이이고, 애들 학교에 월 내는데 그걸 날 게 없어서 그냥 찢절매고 물건도 하는데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또 넣어놓으려고 그랬다.' 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야. 절대로, 이거는 부처님 법이 자체가 그대로, 그대로 법이지 절대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이유가 거 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경험을 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러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죠.

질문자(남): 그럼 일단 법이니까 한번 당해 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스님: 네?

질문자(남): 일단 법이니까 법은 법이니까 자기가 그걸 되돌려놓는 방법은 결국 당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스님: 그런데 이 둘 아닌 관찰을 할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아라면 즉, 혜향(慧香), 마음의 혜향이라면 해탈향(解脫香)도 할 수 있고, 해탈지경향(解脫知見香)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게 마음 그대로인데 그대로 그 도리를 알았더라면... 이거 해가지고 사는 것만 알았지 그 사람들이 될 않니까? 그러나 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러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둘 아닌 도리를 알고 그 무명 속에서 벗어날 줄 안다면 결국은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그 도리를 아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아무 지장이 없을 테죠? 또 그렇게도 하지 않을 거고요.

질문자(남):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도 타고 내리는게 있듯이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입니다.
안되는 건 되기 위해서 안되는 거니까 그것을 재료로 삼아야지
항상 그것을 업으로 삼고 또는 병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항상 병고에서, 애고(哀苦)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건데, 먹이는 것도, 네 시자를 먹이는 것도 네가 먹일 거고, 끌고다니는 것도 네가 끌고다니는 거고, 다 굶어죽이는 것도 네가 할 거고 살리는 것도 네가 할 것이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부지런히 안을 다스리면서 뛰게 되면,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뛰게 되면 영원한 양식을 얻을 겁니다.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화두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인공을 잡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선방에서는 '이 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어떤 선지식은 '내가 누구인가?' 했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있음' 이라고 했습니다. 또 스님께서는 '야빠' 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많은 화두 중에 내면에 잡히는 것이 있고 잡히지 않는 것이 있는 걸 볼 때는 이 자기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치신 분들마다 화두의 표현이 다른 것을 볼 때는 무슨 도리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민어라. 무조건 믿고 잘라 먹어봐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공' 하면은 전체 한데 합쳐진 주인공입니다. 개별적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나 외부로나 모든 게 한마음으로 뭉쳐진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공(空)해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틀림없이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전체 뿌리를, 나무는 전체 뿌리를 믿어라. 네 나무는 전체 뿌리에서만이 너 나무가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 살 수 있다. 너만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형성해서 심부름꾼으로 있지 않은가. 이런 걸 믿고 무조건 놓아라. 무조건 믿고 거기에 맡겨놓아라 이런 겁니다. 맡겨 굴러라 이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뭘?' (손수건과 칫반침을 함께 들어 보아) 하고서 굴러다 보면은 십 년이 가도 그만, 이십 년이 가도 그만, 삼십 년이 가도 그만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죠, 안 그렇습니까? (

급해서 그냥 뭐 찢절매다가 어이구, 어디 가서 꿀 데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서 꾸어 쓴 이런 생각으로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건을 산 값입니다. 이 돈을 시주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물건 산 겁니다. 그럼 물건은 가져오고 이게 물건값은 도로 빼앗아 온다면 그건 그 물건 사왔던 걸 도로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된다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예 내 가정이 내 내 삶,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또 부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잘 알아서 정성껏 새 돈으로 바꿔서, 이걸 정성이니까 이렇게 떼어내라 이래야지 무척대놓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집어서 이렇게 해놓고 도로 갖다 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그것을 왜 그렇게 내가 일러주느냐 하면 몇 해 전입니다. 몇 해 전에, 여기 아는 사람도 있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 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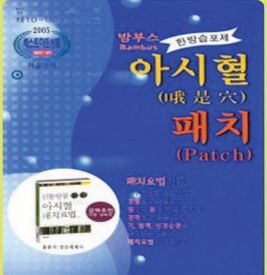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칠성상회
02-879-2007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 복사, 프린트 모두 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 부기, 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3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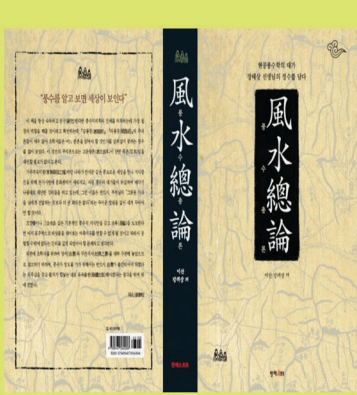
수행에 지친 분들의 인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액기스
민달본(80ml/60팩)
금액: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큰조 화환
(직접 납품시점에 배송가능)
금액: 100,000원



5차 재입고, 매년 인기 상품
을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이 카페트 매트
금액: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연구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35,000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할, 혈액순환 원할,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절,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며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 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